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금주의 GVC Insight



최신 GVC 해외 이슈

【수출제재, 러시아】 러시아 푸틴 대통령, “비우호국에 러시아 제품·원자재 수출 금지” 보복제재령 서명

【원유, EU·독일·러시아】 EU,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6차 제재 패키지 논의 중

【천연가스, 러시아】 러시아 가스프롬, '22.4월 가스 수출 22% 감소 → 3개월만에 최소치 기록

【무역, EU·우크라이나】 EU,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세·쿼터 등 무역제한 조치의 면제 추진

【코로나·경제, 중국】 중국의 코로나19 및 경제·산업 동향

【경제·무역, 중국】 中, 5.1일부로 수입 석탄에 잠정 세율 0% 적용

【금융·환율, 중국】 中 인민은행, 5.15일부터 금융 기관 외화 지급준비율 9%→8% 하향 조정

【경제, 미국】 美, '22년 1분기 경제성장률 -1.4%로 '20년 2분기 이후 첫 역성장

【경제, 미국·중국】 미국 의회, 對中견제법 조정을 위한 '양원협의위원회' 구성 완료

【LNG, 한국·EU】 한국, 'LNG 공급난' 유럽에 올 여름까지 일부 물량 제공키로



GVC 뉴스 더하기

① EU 집행위, 가스대금 루블화 지불 프로세스 및 6차 對러 제재 동향

② 美 상·하원 對中견제법 추진 동향



GVC 기초상식

① 세계 희토류 생산과 국내 수급 (희토류 2편)

② 원자재 알아보기 - '무연탄과 유연탄'



GVC 돌보기

① 러·우 사태에 따른 유연탄-시멘트-건설업 공급망 현황

② 원자재 시리즈 4편 - '금속'



GVC 전문가

박가현(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기업의 대응 현황'



GVC 소식통

① 라우 사태 및 중국 봉쇄조치 관련 기업 지원 문의처

② 기업들을 위한 물류 자원 사업 안내

③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글로벌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 개최 및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방문 (4.29)



더 찾아보기

초인플레이션이 부른 로마제국 몰락의 교훈
(주간조선 홍익희)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최신 GVC 해외 이슈

● 【수출제재, 러시아】 러시아 푸틴 대통령, “비우호국에 러시아 제품·원자재 수출 금지” 보복제재령 서명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5.3일(현지시간) ‘일부 외국과 국제기구의 비우호적인 행동’에 대응해 보복 제재 성격의 특별 경제조치 적용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힘
- 대통령령은 보복 제재 대상이 된 외국의 기업이나 개인 등과 통상·금융 거래를 하거나, 제재 대상국으로 러시아산 상품과 원자재를 수출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
- 대통령령은 제재 대상을 위해 공급될 수 있는 러시아산 생산품과 채굴 원료의 국외 반출도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은 향후 10일 내로 구체적인 제재 대상 명단을 확정하라고 러시아 정부에 지시
- 한편, 러시아 정부는 지난 3.7일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에 비우호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 영국, 호주, EU, 한국 등 48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수출 금지(제한) 품목 500개를 발표한 바 있음. 다만, 당시 조치는 러시아산 물품이 아닌 과거 외국에서 수입한 제품·장비의 반출을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음

출처 : 연합뉴스(22.5.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등

● 【원유, EU·독일·러시아】 EU,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對러 6차 제재 패키지 논의 중

- 그간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에 미온적이었던 독일의 태도가 강경론으로 바뀌면서 EU의 對러 원유 수입금지 제재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음
- WSJ는 5.2일 EU 집행위가 5.3일 열리는 EU 에너지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에게 러시아산 원유·정유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6차 對러 제재 방안을 제안하고, 각 회원국은 주말까지 찬반을 결정할 전망이라고 보도
- EU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 것은 유럽의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임.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독일에 공급되는 원유 중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당초 35%에서) 12%까지 낮아졌으며, 금년 늦여름까지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미하엘 클라우스 EU 주재 독일대사도 6차 對러 제재 패키지에는 석유 수입금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독일 언론사 FAZ는 독일보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탈리아·오스트리아·그리스·슬로바키아는 회의적이고, 헝가리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으며, 슬로바키아·헝가리는 제재에 참여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한편, EU는 오는 8월부터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음

출처 : 조선비즈(22.5.3), WSJ 등

● 【천연가스, 러시아】 러시아 가스프롬, '22.4월 가스 수출 22% 감소 → 3개월 만에 최소치 기록

- 블룸버그 자체 집계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의 '22.4월 천연가스 수출(구소련 지역 제외)은 '22.3월 대비 22% 감소하여 3개월 만에 최소치 기록
 - '22.1~4월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501억㎥
- 특히, '22.4.1~26일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對유럽 수출량은 하루 평균 2억9천800만㎥로 3월 대비 18% 감소

출처 : Bloomberg(22.5.1), 연합뉴스(22.5.2) 등 언론보도 종합

● 【무역, EU·우크라이나】 EU,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세·쿼터 등 무역제한 조치의 면제 추진

- EU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경제 및 전후 복구 지원을 위해 향후 1년간 모든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관세·쿼터 및 기타 무역 제한조치를 면제할 전망
 - 야채 및 청과물 등 최소가격제 적용 품목, 쿼터 제한 농산품 및 연내 관세 폐지가 예정된 일부 공산품 등 아직 자유화하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무관세 자유 교역 허용
 -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도 우크라이나 철강에 대해 면제되며, 우크라이나 강관, 열연강판 및 다림질 판 등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도 면제됨
- 앞서 영국이 우크라이나 상품에 무관세 혜택을 부여한 것에 이어 유사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금번 조치는 향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 발효 예정
- 한편, 흑해 봉쇄로 해상운송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EU는 우크라이나의 육상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EU에 입국하는 우크라이나 트럭 운전자 요건 완화 등의 조치도 시행 중

출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2.4.29)

● 【코로나·경제, 중국】 중국의 코로나19 및 경제·산업 동향

- 중국 리커창 총리는 4.27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지원 조치를 지시한 바, 기업이 방역을 전제로 조업을 재개하며 생산량을 증대하도록 하고, 특히 산업망·공급망 주요 기업, 교통·물류기업, 방역·공급보장 기업, 핵심 인프라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어려움이 큰 기업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도록 함
- 상하이 지역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고 지역 봉쇄가 완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상하이시는 1차 조업 재개 명단인 '1차 화이트리스트' 666곳에 이어 2차 대상 1,188곳도 4월말 추가 발표함. 1차 리스트의 관리 주체는 상하이 시정부였지만, 2차 리스트의 관리 주체는 시 산하의 각 구정부임
-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4를, 비제조업(서비스업) PMI는 41.9를 각각 기록함. 기준점인 50보다 낮으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며 이 수치는 코로나19의 타격을 처음으로 받은 2020년 2월 이후 최저치이며, 제조업 PMI는 2개월 연속 50이하를 기록함
- 중국 정부는 금년도 경제성장을 목표로 제시한 '5.5% 내외'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부양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4.26일 시진핑 주석 주재로 개최된 중앙재경위원회 11차 회의에서도 전면적으로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며, 4.29일 정치국회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 및 구체적 조치의 이행을 지지한다고 발표함

출처 : 주중한국대사관 일일경제동향('22.4.28), WSJ, 파이낸셜뉴스, 이데일리 등

● 【경제·무역, 중국】 中, 5.1일부터 수입 석탄에 잠정세율 0% 적용

- 中 당국은 에너지 공급 보장 강화 및 질적 성장 추진을 위해 5.1일부터 수입 석탄에 잠정세율 0% 적용
 - (적용시기) '22년 5월 1일 ~ '23년 3월 31일
 - (변경내용) 총 7개 품목 △무연탄(HS CODE 27011100), 코크스용탄(27011210), 갈탄(27021000, 27022000) MFN세율 3% → 잠정세율 0% 적용, △기타 석탄 관련 제품(27011900, 27012000) MNF세율 5% → 잠정세율 0% 적용, △유연탄(기타 역청탄: 27011290) MNF세율 6% → 잠정세율 0% 적용
- 중국의 주요 석탄 수입국은 인도네시아, 러시아, 몽골, 호주 등이며 '21년 중국의 석탄 수입량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3.23억톤으로 2년 연속 3억톤 초과 (수입 의존도 7.3% / 석탄 생산량 40.7억톤)
- 업계는 이번 정책을 국제 석탄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평가하며, 세계 최대 석탄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의 수입관세 면제가 글로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중국 당국은 석탄 가격 안정화 및 공급 보장을 위해 '22년 들어 석탄 중장기 계약 관리강화, 가격안정 대책 회의 소집, 석탄 가격 모니터링 및 공급과 가격 안정화 조치를 지속 추진해옴

출처 : KOTRA 베이징무역관, 財政部(4.28) 등 언론보도 종합

● **【금융·환율, 중국】 中 인민은행, 5.15일부터 금융기관 외화 지급준비율 9%→8%로 하향 조정**

- 중국 인민은행은 외화자금 운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5.15일부터 금융기관의 외화 지급준비율을 기존의 9%에서 8%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 발표함
- 4.25일 달러대비 위안화 역외 환율이 '20.11월 이후 처음으로 6.6위안을 돌파했으나, 지급준비율 인하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달러대비 위안화 역내 및 역외 환율은 각각 6.55, 6.57위안으로 하락
-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외화 수급과 유동성을 조절하여 외화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달러 대비 위안화의 일방적인 평가절하 및 양떼 효과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이번 조치를 통해 위안화 환율이 다시금 박스권 내에서 강·약 보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출처 :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22.4.27), 상해증권보

● **【경제, 미국】 美, '22년 1분기 경제성장률 -1.4%로 '20년 2분기 이후 첫 역성장**

- 미 상무부는 '22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1.4%라고 발표(4.28일)
- 블룸버그와 뉴욕타임스는 ① 무역적자, ② 기업의 재고 투자 감소, ③ 정부 지출 감소가 GDP를 하락시킨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
 - ① 미국의 소비 활성화로 수입이 급증하고, 다른 나라들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며 1분기 미국의 무역적자는 최대치를 갱신하고 GDP를 3.2%p 하락시킴
 - ② '21년말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재고를 과도하게 크게 늘렸던 미국 기업이 '22년 들어 재고 투자를 감소시키며 GDP가 0.8% 이상 감소함
 - ③ 국방 지출 8.5% 감소를 비롯하여 미국 정부의 전반적인 지출이 감소하여 GDP가 하락함
- 다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비지출이 연율 2.7%, 기업 투자가 연율 9.2% 증가하여 실물경제가 성장하는 등 경제 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출처 : 연합뉴스(22.5.2) 등 언론보도 종합

● **【경제, 미국·중국】 미국 의회, 對中견제법 조정을 위한 '양원협의위원회' 구성 완료**

- 對中견제법 조정안 마련을 위해 미 상원은 67(贊) 對 26(反)으로 '양원협의위원회'를 구성
 - 상원·하원에서 마련한 법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양원협의위원회를 거쳐 차이점을 조정하여 다시 상원·하원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수행
- 5.3일을 시작으로 총 28번의 거수를 거쳐 의제 조정 및 참석의원을 선출할 예정이며, 양측은 7월 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할 것을 목표로 함
- 전문가들은 양측 對中견제법 최종협약안이 금년 가을에 공개될 것으로 예측

출처 : KOTRA 워싱턴무역관, 폴리τικο(4.29) 등 언론보도 종합

● **【LNG, 한국·EU】 한국, 'LNG 공급난' 유럽에 올 여름까지 일부 물량 제공키로**

-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에너지 부족 위기에 직면한 유럽에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일부를 제공키로 결정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4.27일 “동절기가 지나 LNG 수급 상황에 여유가 생겨 국내 수급이나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일부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
- 한편, 러시아는 4.27일부터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등 서방의 對러 제재에 맞서 에너지를 무기화하여 사용 중
 - 러시아는 지난 4.1일부터 러시아 국영은행에 계좌개설 및 가스 대금의 루블화 결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유럽국가들이 이에 동의할 때까지 공급 중단을 이어가겠다고 밝힘

출처 : 로이터, 연합뉴스(22.4.27) 등 언론보도 종합



GVC 뉴스 더하기 ① : EU 집행위, 가스대금 루블화 지불 프로세스 발표 및 6차 對러 제재 동향

※ 금주 중 EU 집행위의 6차 대러 제재안 발표 가능성 있음. 이와 관련 베라 요루오바 EU 부집행위원장은 이는 회원국과의 협상 결과에 달려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EU 전체적으로 러시아산 원유·가스의 수입 금지를 검토하는 것과는 별개로 기존 계약 건의 해결을 위한 현지 동향을 살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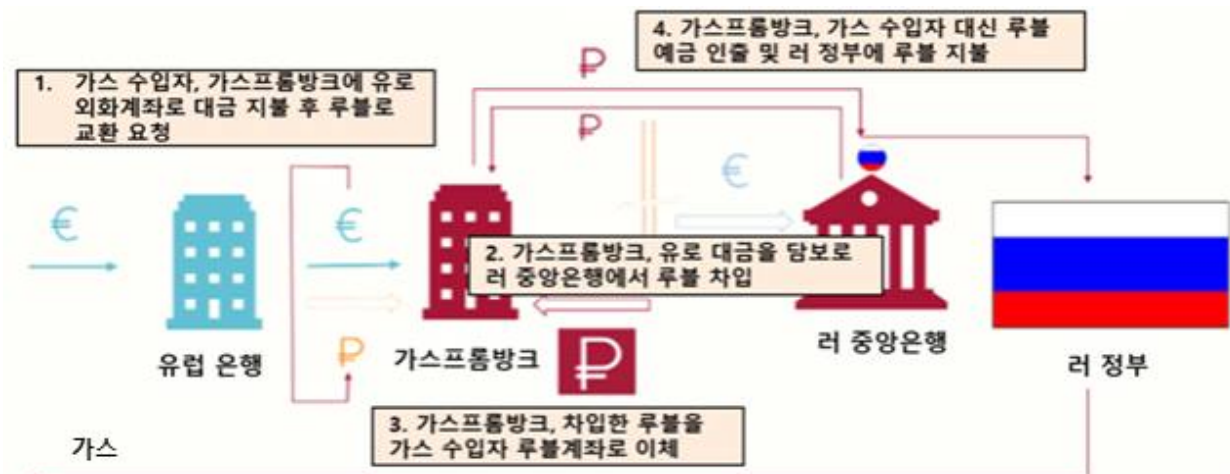
● 러시아 가즈프롬, 폴란드·불가리아에 대한 가스 공급 중단

- 폴란드 가스공급사 PGNiG는 야말-유럽 가스관을 통하는 러시아 가즈프롬의 對폴란드 가스 공급이 4.26일자로 완전 중단되었다고 발표
 - PGNiG는 야말 가스의 공급 계약은 금년말까지인 만큼 4.26일자 러시아의 가스 차단은 계약 불이행이라고 주장
 - 폴란드 정부는 당일 가즈프롬, 노바텍(노바텍 그린에너지 포함)을 포함한 러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발표
- 또한 러시아 가즈프롬은 4.27일부터 불가리아 Bulgargaz사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
 - 가스 공급 중단 사유는 폴란드와 동일하게 루블화 가스 대금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언론 보도됨 (4.24일 불가리아 정부는 러 가스대금을 루블이 아닌 유로로 지급할 것이라고 선언)
- 러의 폴란드·불가리아 가스 공급 중단 발표 직후 4.27일 유럽 가스 현물거래가 전일대비 20% 급등
 - ICE(국제상업거래소)의 5월 선물거래가격은 1천㎥당 1,390달러, 동일 시간대 모스크바 거래가는 1,179달러

● 對러 원유·가스 제재와 별개로, EU 집행위는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는 러 가스대금 루블화 지불 방안 발표

- EU집행위는 '가스수입자가 유로 및 달러로 가스대금 지불 후 루블로 전환 시 제재 위반 없이 대금 지불 가능하다'고 자문 문서를 통해 밝힘
 - 다만 가스 수입기업이 非러시아 통화를 예치했을 때 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추가 조건 확인은 러시아 측과 필요하다 언급
- 벨기에 싱크탱크 Bruegel에 따르면 가즈프롬뱅크-러 중앙은행간 차입 통해 루블로 가스대금 지급도 가능. 동 방법 사용 시에도 러 정부는 가스 수입업체가 예치한 유로 대금에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가스대금을 루블화로 전환, 국내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분석

〈 제재 우회한 루블화 결제 방법 순서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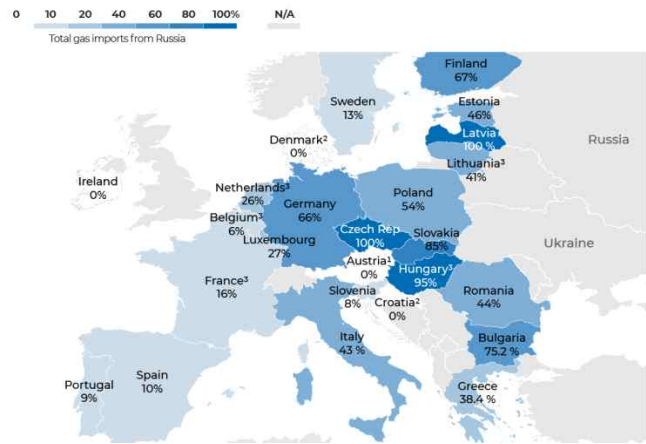
출처: Bruegel(4.19)

- 한편 이 경우 가스프롬뱅크가 가스 가격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외환 수수료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로 러 VTB 은행이 개인 고객의 루블-달러 거래 시, 전쟁 전 4% 수준 대비 3배 높은 수수료를 적용 중이라고 안내

● 유럽의 대응 방향은?

〈 EU 국가별 러시아 가스 수입 비중 〉

- 러시아에 대한 가스 대금 루블 지급 관련, 유럽 각국의 러시아 가스 수입 의존도에 따라 대응 방향이 상이한 것으로 판단



출처 : 알자지라 (소스는 유로스타트2021)

- 핀란드는 루블화 지급 거절 선언
-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Eni, 가스프롬뱅크에 가스 대금 지급용 루블화 계좌를 개설 중 (블룸버그 보도)
- 오스트리아 가스 유통사 OMV, 루블화로 대금 지급 완료했다고 러시아 대표 언론사 TASS가 보도했으나, 네하머 총리는 유로화 지불을 확인 (현재 러시아의 對오스트리아 가스 공급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
- 가스프롬의 독일·오스트리아 법인인 가스프롬 마케팅이 4월~5월분 가스 대금을 러시아측 요구대로 루블 계좌로 입금했으나 가스프롬뱅크가 거절했다는 보도도 있음
- 한편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폴란드·불가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가스 차단 직후에 EU 차원에서 러시아 가스 수입금지 조치를 강구 중임을 재차 언급
 - 폴란드·불가리아는 인접 유럽국으로부터 가스를 대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예정이라고 첨언

● 한편 EU집행위의 6차 對러 제재 발표 임박했으나, 최종 발표까지 난항 전망

- EU 집행위는 5.3일 에너지장관회의에서 회원국에 러시아산 원유·정유제품의 수입 금지 내용을 담은 6차 대러 제재 방안을 제안하고, 회원국이 주말까지 찬반을 결정할 전망 (5.2일 WSJ)
 - 한편 6차 對러 제재는 5월 말 예정된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으로, 그 전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존재
 -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러시아산 원유·가스 수입금지 또는 징벌적 관세 부과에 대하여 회원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발표 지연 가능성을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4.25)
- (원유 수입금지) 최대 쟁점은 폴란드 및 발틱국가들이 러시아 에너지의 전면 수입 금지를 요청한 반면 독일·헝가리·오스트리아는 반대 입장 (다만, 독일은 최근 對러 제재에 전향적으로 입장 변화 중)
 - 한편 역대 충격 최소화 위한 '스마트 제재 준비 중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부집행위원장, 제재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중으로, 구체적인 방법은 합의된 바 없으나, 단계적 원유 금수, 가격상한 초과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을 고려중이라 답변(4.25)]
- (가스 수입금지) 독일·이탈리아 등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반대
 - 이탈리아는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을 통해 러시아로 유입되는 자금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
- (금융 제재) 러시아 제1은행인 스베르뱅크에 대한 EU의 제재는 회원국의 수용가능성이 높은 상황



GVC 뉴스 더하기 ② : 美 상·하원의 對中견제법 추진 동향

※ 미국은 對中견제 법안의 5월 중 통합을 목표로 양원협의위원회를 구성 →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짐.
입법은 금년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완료될 전망이다, 아래 법안의 내용 및 공급망 관련 사항을 살펴보자

● 對中견제 법안 중에서 무역관련 내용

① 상원 법안 : 강제노동법, 디지털 무역 협정 지원, USTR 감사기구, 301조 관세 면제 및 공급망 활성화

강제노동법	• 관세국경보호청(CBP) 내 수입품목의 강제노동 관련 탄원서 접수·조사 담당 강제노동 분과 신설
디지털무역 협정 지원	• 디지털 무역 환경 저해 국가 및 정책의 USTR 분석 지시 등
USTR 감사기구	• '21년 통과된 USTR 감사기구 설립 법안을 동 법안에 포함, 대통령에게 위원장 임명 권한 부여
301조 관세	•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17.3월)한 301조 관세 품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지시 - 관세 조치가 해제된 업체들의 '20.12월 이후 손해분에 대한 배상 조치 마련 및 301조 관세 면제 규정 개편을 통해, 무의미한 규모의 관세 품목을 제외해 관세 조치의 실효성 증대를 추진
공급망 활성화	• 미국 지도부와 기업들의 공급망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정보 생산에 주력 - USTR 산하 '필수품목 무역위원회' 창설과 동 부서의 공급망 동향 및 문제점에 관한 의회 보고서 제출, 상무부에는 원재료 및 생산품의 생산·수요 업체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시 - 필수 의약품 및 약품 원재료 수출량을 최대 180일간 제한·금지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 명문화

② 하원 법안 : 무역조정지원제도, 무역구제법 개혁, 미소 수입기준 개혁, 해외투자심사 정책

무역조정지원제도	• 무역 협정 체결로 피해를 본 노동자, 기업, 공동체 지원제도(22.6월 만료 예정)를 갱신
무역구제법 개혁	• 미국제무역위원회,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 품목 조사 효율성 증대 및 항소 절차 간편화
미소 수입기준	• 비시장경제국, USTR 감시국의 800달러 이하 상품에 대한 무관세 수입 혜택 제외 등
해외투자심사	• 주요 산업에 대한 USTR 감시국의 해외투자 감독, 국가안보·공급망·지재권 침해가 우려되는 생산 시설·기술의 해외 이전에 대한 사전 신고·승인을 의무화

③ 공통 법안 : 일반 특혜관세제도와 기타 수입관세 임시철폐법안 재도입 & 세계무역기구 지원

일반특혜 관세제도	• '20.12월 만료된 개발도상국 특혜 관세제도 재도입하며, 하원은 노동권, 인권, 환경보호를 특혜 부여 조건으로 강조한 반면, 상원은 인권, 환경보호, 여성, 디지털 무역을 강조
기타 수입관세 임시철폐 법안	• '20.12월 만료된 '자국 생산이 불가한 대체품목에 대한 관세 완화 및 면제' 조항 재도입하며, 하원은 상원과 달리 완제품에 대한 기타 수입관세 철폐법안의 중단·인하금지 조치를 포함

● 현지반응, 전망 및 시사점

- 양원협의위원회는 對中견제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개선하고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 對中견제 법안의 주요 목표를 적극적인 외교·무역 정책을 통한 (1) 반도체 산업 육성, (2) 제조업 및 공급망 강화, (3) 국내 기술개발 지원, (4) 미국의 국제경쟁력 강화 달성으로 요약
- 한편 美 상공회의소는 하원 법안 통과에 따른 무역 장벽 상승을 우려해 상원 법안을 지지
 - GSP, MTB, 301조 관세 면제 등 美무역장벽완화 법안이 공급망 안정 및 물가상승률 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언급
 - 미국의 주요 언론매체인 폴리티코는 최종 통과에 상원 60표(민주당 50표, 공화당 10표)가 요구되는 만큼, 공화당 지지를 위해 협의 위원회가 상원 법안을 중심으로 최종안을 개편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
- 법안 통과 시 관세를 조정할 통한 무역 시장 변화에 주의가 필요하며,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한 장기 대응 방안 속 우리기업의 기회 모색 필요
 - 301조 관세 조치 해제 및 무역구제법 개혁으로 인한 관세율 변화가 무역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USITC의 '22.4월 자료 기준, 한국은 총 33개의 반덤핑과 7개의 상계관세 품목이 존재하여, 법안 통과 시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최종안 통과 이후 우리기업이 반도체·제조업·기술개발 육성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참여·활용 가능한 부문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



GVC 기초 상식 ① : 세계 희토류 생산과 국내 수급 (희토류 시리즈 2편)

※ 첨단 산업의 핵심 광물 희토류, 세계의 희토류 생산 현황과 국내 수급 관련 이슈를 알아보자

〈희토류 시리즈〉

9호 : 희토류 개요

10호: 희토류 생산과 국내 수급

● 희토류 생산 및 가공 현황

- 2021년 기준 세계 희토류 원광의 92.5%는 중국을 포함한 4개국(중국, 미국, 미얀마, 호주)에서 생산되며, 100여 개가 넘는 국가로 수출되고 있음
- 희토류 원광에 대한 가공(분리 및 정·제련 등)이 가능한 국가는 중국, 프랑스 등 소수에 불과하며 해당국은 가공 과정의 일부만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채굴부터 제품 제작까지의 모든 가치사슬을 보유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



〈희토류 분리·정제 시행 국가〉¹⁾



자료 : USGS 2021

● 국내 희토류 수급 현황

- 국내 희토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생산되지 않아 대부분 수입에 의존
- 우리나라는 희토류 금속의 9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희토류 화합물은 중국에서 약 49%를, 일본에서도 30%를 수입하고 있음
- 일본은 중국 등에서 수입한 희토류 원료를 가공하여 고품질의 화합물로 생성 → 부가가치를 높여 수출

● 최근 희토류 관련 주요 이슈

- (가격 폭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영구자석의 수요가 늘어나며, 자석의 원료인 산화네오디뮴은 '20년 2월 42,000(달러/톤)에 거래되었으나, **2년만인 '22년 2월 192,375(달러/톤)을 기록하며 최고 가격을 경신**
- (수요 급증)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첨단산업의 발달로 전기차 모터, 풍력발전기 터빈, 휴대폰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의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
- (중국의 수출 통제) 세계 최대 희토류 보유·생산국인 중국은 지난 2014년 희토류 관련 기업을 6개 국유기업으로 통합한 데 이어, 2021년 남부 장시성에 세계 최대 '중국 희토그룹'을 출범시키고 연간 희토류 생산 총량을 통제하는 등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 시사점

- 가격 폭등, 자원무기화 등으로 수급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는 △주요 원소 수급상황 모니터링, △해외 주요 자원 관련 투자 확대, △희토류 저사용 기술개발, △호주/미국 등지로의 수입처 다각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1)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희토류 공급망 현황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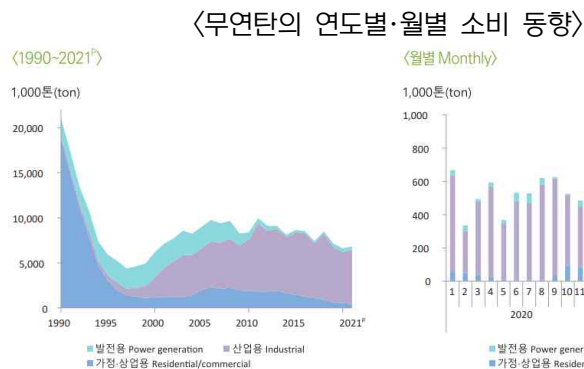
GVC 기초 상식 ② : 원자재 알아보기 - '무연탄과 유연탄'

※ 석탄은 원유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 원자재이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지만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석탄의 종류를 무연탄과 유연탄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자

- 석탄은 2020년 기준 세계 1차에너지 소비량의 27.2%를 차지하여 석유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큰 에너지원으로, 유연탄이 국내 석탄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
 - 국내 석탄 종류별 사용 비중은 2020년 기준 유연탄 88.4%, 무연탄 3.5%

- 무연탄이란 연소 시 연기가 나지 않는 석탄으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석탄'은 법적으로 무연탄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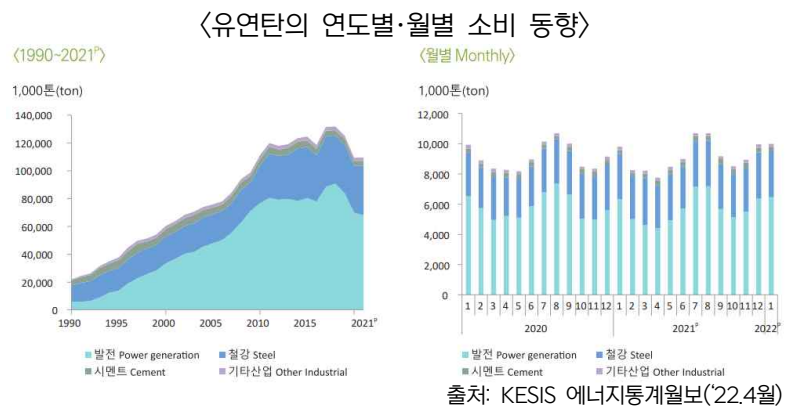
- 검은 빛을 띠고, 금속 광택이 있으며 단단함
- 휘발분이 적어 불이 쉽게 붙지 않지만, 연기가 나지 않는 특성 때문에 1980년 이전까지 국내에서 군사용·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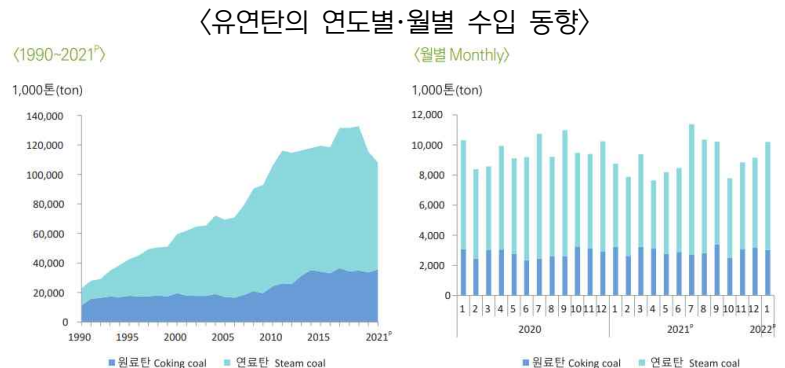
- 현재는 연탄 제조 및 발전용, 특수강 제작용, 상수도 정수용 등의 용도로 사용됨
- 2020년 기준 6,286천톤이 수입되었으며, 1,019천톤이 국내 생산으로 조달되고 있음
 - '88년 이전에는 국내에서 연간 24,000천톤까지 생산하였으나, 경제성장과 청정연료 선호 현상 등으로 인해 '89년부터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생산량이 1/10 이하로 감소하였음

- 유연탄이란 연소 시 탄소, 황, 질소 등 연기 배출이 많은 석탄의 종류를 지칭하며, 우리나라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휘발분이 많아 잘 타고, 연소 시 노란 불꽃을 내는 특성이 있음
- 유연탄은 이탄, 갈탄, 역청탄 등 여러 탄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용도(원료용, 연료용)에 따라 사용 탄종 및 수입국에 차이 존재



- 우리나라에서 유연탄은 발전용 연료, 제철용, 시멘트 제조용 등의 용도로 주로 소비됨
- 유연탄은 국내에서 발전용 수요의 증가로 수입량이 증가하여 2021년 기준 117,106천톤이 수입되었음





GVC 돋보기 ① : 러·우 사태에 따른 유연탄-시멘트-건설업 공급망 현황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산 원자재의 국내 수급이 어려워진 가운데 유연탄 수입난이 우리나라 시멘트, 레미콘, 건설업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시사점을 살펴보자

● 전자재 업계에는 유연탄-시멘트-레미콘-건설업으로 이어지는 공급망이 형성되어 있음

- (시멘트) 유연탄은 시멘트 생산 공정 중 소성공정*에서 가열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됨



* 소성공정: 분쇄된 시멘트 원료를 1450℃로 가열, 시멘트 반제품인 클링커를 제조하는 공정

- 시멘트 전체 생산 원가에서 유연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에 달함
- (레미콘, 건설업) 시멘트 완제품은 물, 모래, 자갈, 혼화재와 혼합되어 굳지 않은 레미콘(Remicon; ready-mixed concrete) 상태로 믹서 트럭을 이용하여 건설 현장으로 운반됨

● 우리나라의 유연탄 수입국 비중은 호주(54.1%)가 러시아(16.3%)보다 높지만, 국내 시멘트 업계의 경우 반대로 러시아(71.5%)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유연탄 수입국 비중(2021)〉

단위: 백만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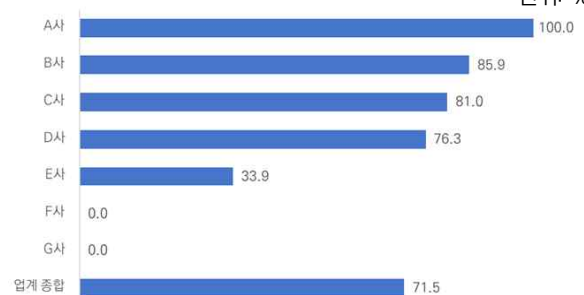
순위	국가	수입금액	비중
1	호주	7,291	54.1
2	러시아	2,203	16.3
3	인도네시아	1,514	11.2
4	캐나다	1,173	8.7
5	남아프리카 공화국	359	2.7
총 수입금액		13,485	100.0

주: 유연탄(HS270112)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내 시멘트 업계의 유연탄 수입 對러시아 의존도(2021)〉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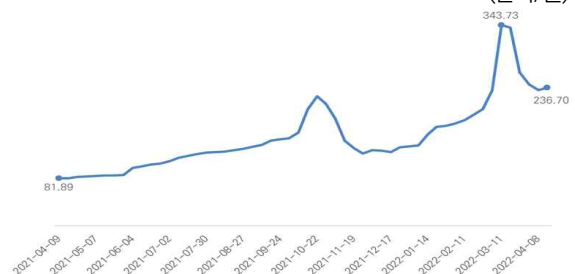
- 유연탄 매장 국가는 다양하나, 탄종 적합성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 시멘트 업계는 유연탄을 러시아와 호주 2개국에서만 수입하고 있음
- 특히 일부 시멘트 업체의 경우, 유연탄 전량을 러시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금지 조치(22.1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물류난으로 유연탄의 국제가격은 두 배 이상 상승하였음

- 평균 유연탄 국제가격(호주 뉴캐슬 FOB 연료탄, '22.4월 기준)은 전년 대비 약 140% 상승
- 특히, 러시아산 유연탄 가격(CFR 동북아 5750kcal/kg NAR, 22.4월 기준)의 경우 전년 대비 약 190% 상승

〈러시아산 유연탄 가격 동향(2021~22)〉

(달러/톤)



자료: KOMIS

● 러시아산 유연탄의 국내 도입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러·우 전쟁으로 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임

● 유연탄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 시멘트-레미콘-건설업계에 연쇄적인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 (시멘트) 월평균 적정재고량 100만톤에 미치지 못하는 약 70만톤 수준으로 재고 감소(22.3월 기준)
 - 겨울철 비수기 이후 유연탄 가격 상승 및 공급난으로 인한 원가 상승 부담도 수급난을 부채질
- (레미콘) 사일로(원통형 창고)에 시멘트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서 압력 부족으로 시멘트를 차량으로 옮기는 시간이 증가하는 문제 발생
- (건설) 4월 중순부터 공사 중단·착공 지연 현상이 증가하며 이윤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시멘트·레미콘 등 원가 상승 부담으로 4.20일 건설 현장 800여 곳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그 중 200여 곳은 무기한 중단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유연탄 가격이 90% 상승할 때 건축물 생산비용이 0.5~0.7% 증가하여 건설사 영업이익*이 최소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
 - * 일반적인 건설사의 영업이익률(2.5%~5.0%) 기준

● 민-관 합동으로 생산 확대, 유연탄 대체물량 확보, 철도 운송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음

- (시멘트) 업계는 ① 3월부터 수출 물량의 50% 이상을 내수로 전환하고, ② 레미콘업계에 시멘트 납품 가격을 15% 인상하였으며, ③ 소성로 추가 가동을 통해 증산하고 있음
 - 업계는 시멘트 증산을 위해 정부에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 조정,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의 한시적 유예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 (레미콘) 시멘트 단가 상승과 공급 물량 감소로 손실이 증가하여, 건설업계와 레미콘 계약 단가 협의를 진행하여, 13%(수도권), 15~20%(타지역) 인상안에 합의
 - 일부 철근·콘크리트 연합회는 4.20일 이후 건설 현장에서 파업
- (민-관 합동) 정부(산업부·국토부)와 시멘트업계, 시멘트협회는 4.6일 '시멘트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① 시멘트 생산 확대, ② 유연탄 대체 물량 확보 및 연료 전환, ③ 철도 운송 확대 등을 추진하여 시멘트 수급 안정에 대응 중
 - '22.2분기에 전분기 대비 시멘트 35.7%(약 377만톤)를 추가로 생산 (1분기 1,055만톤 → 2분기 1,432만톤)
 - 시멘트 생산설비인 킬른 10기(3월 22기 → 4월 32기)를 추가로 가동하여 총력 생산 체제에 돌입
 - 수출 물량(월평균 약 38만톤)을 내수로 전환하여 국내에 우선 공급
 - 유연탄은 러시아 외에 대체 수입국(호주 등)의 수입 비중 제고(호주산 비중 '21년 25% → '22.1분기 46%)
 - 중장기적으로, 순환자원·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연료 전환을 통해 유연탄 의존도를 낮추어 나갈 예정

● 시사점

- 요소수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직접적인 품목 분석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간접효과에 따른 공급망 위험 요소가 존재할 수 있음
 - 시멘트의 경우, 원료(석회석) 뿐만이 아니라 연료(유연탄)의 공급망도 함께 확인해야 함
- 관련 업계와 정부의 협력을 통한 중장기적 대응 방안 수립이 필요
 - 환경규제 완화를 통한 증산,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 등 단기적 대응이 우선 필요
 - 민-관이 원자재·연료 대체, 생산라인 조정 및 전환 비용을 고려한 수입선 다변화를 논의할 필요



GVC 돋보기 ② : 원자재 시리즈 4편 - '금속'

※ 청동기 시대부터 현대사회의 스마트폰까지, 금속은 인류 문명의 발전과 함께해온 원자재이다. 이번 편에서는 **주요 금속의 최근 가격 동향**과 **해외기관의 가격 전망치**를 소개하고자 함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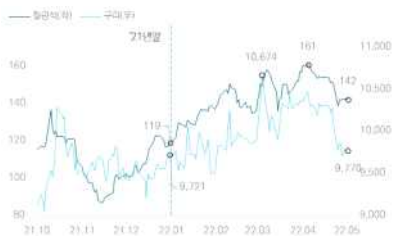
- 금속은 철분(Fe)을 포함하고 있는 **철 금속**과 철분을 포함하지 않은 **비철금속**(구리, 알루미늄, 니켈 등)으로 분류
- 금속은 건설, 기계, 전기·전자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전기차와 반도체 등 첨단제품의 핵심 원자재로 쓰임

● 가격 동향

- 러-우 전쟁 이후 불안심리로 금속 가격이 급등했으나 4월 이후 가격은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세**
- 3월 중 니켈 가격 급등의 원인은 中 칭산그룹의 숏커버링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 ('인사이트' 4호 참고)
- 러시아의 세계 생산 비중이 비교적 낮은 구리(3.9%)와 알루미늄(5.6%)은 '21년말 대비 현재 가격 상승폭이 각각 0.5%, 8.7%로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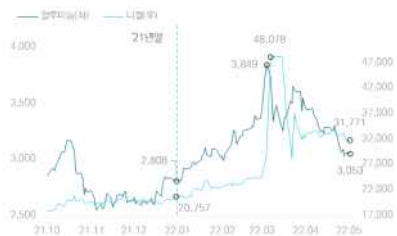
〈 철광석·구리 가격 동향 〉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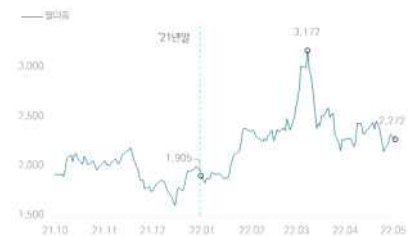
〈 알루미늄·니켈 가격 동향 〉

(달러/톤)



〈 팔라듐 가격 동향 〉

(달러/트로이온스)



출처 : Bloomberg, 5.2일 기준

● 가격 전망

- 러-우 전쟁으로 금속 원자재의 **공급 불안**이 증대된 가운데, 세계 최대 금속 수요국인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수요측 변동성**도 확대되면서 하반기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장기 관점에서 보면 **친환경 전환**이 주요국의 핵심 정책과제로 떠오르면서 전기차, 이차전지, 태양광 모듈 등 친환경 장비 소재로 사용되는 **구리, 알루미늄, 니켈 등 비철금속**에 대한 수요는 견조할 전망
- 반면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팔라듐은 시장 중심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이동하면서 장기적으로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품목별 가격 전망 〉

품목	단위	현재가	'22년 2분기	'22년 3분기	'22년 4분기	'23년 1분기
철광석	달러/톤	142	143	135	123	113
구리	달러/톤	9,770	10,275	10,192	9,917	9,692
알루미늄	달러/톤	3,053	3,500	3,550	3,400	3,417
니켈	달러/톤	31,771	29,500	27,500	26,000	25,000
팔라듐	달러/트로이온스	2,272	2,670	2,600	2,550	2,488

출처 : 철광석 6개, 구리 10개, 알루미늄 9개, 니켈 9개, 팔라듐 7개 해외기관 전망치의 중간값

주 : 러-우 사태(2.24일) 이후 전망치만 포함

▶ 다음호(11호)에서 이어집니다

작성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GVC 전문가 : 박가현(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우리기업의 대응 현황’ (22.5.3)

※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러-우 전쟁, 자원민족주의 등 국제 정세의 변화로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음. 가중되는 공급망 불안으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대응 현황을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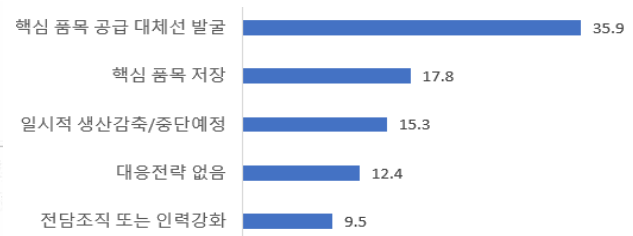
- **팬데믹, 미-중 무역분쟁,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생산과 교역 전방위로 확산**
 - 물류지연, 운임비 폭등, 원자재가 인상 및 상품 수급 차질 등 공급망 문제가 심화되며 기업의 피해도 가중
- **국내 수출기업 1,094개사 대상 설문 결과, 10개사 중 8개사 이상이 공급망 문제를 겪었다고 응답**
 - 응답 기업들은 물류난(35.6%)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27.8%)를 가장 많이 겪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 위기에 수입처 다각화, 주요품목 재고 확보 등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질적 대안이 없는 기업도 4곳 중 1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들은 수입선 다변화(35.9%) 및 핵심품목 저장(17.8%)등을 선택
 - 반면 생산감축·중단 예정이라는 응답이 15.3%, 대응 전략이 없다는 답변도 12.4%에 달해 1/4 이상이 공급망 교란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분석

〈수출기업의 공급망 애로 경험〉



주 : 각 항목별 복수응답

〈공급망 문제에 대한 기업 대응〉



-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지원으로는 물류안정화 및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응답**
 - 물류난의 조속한 해결 요청(39.4%) 다음으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선제대응 강화(20.8%)가 높게 나타나, 공급망과 관련된 정보의 적시 제공을 통해 위기를 감지하고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도 높은 것으로 분석
- **기업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정부가 상호 협력하여 장/단기적 대응전략을 구축해야 할 필요**
 -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완화로 주요 생산시설 폐쇄/지역봉쇄 등 극심했던 공급망 문제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전염병 재확산/기후변화/기타 국제정세 변화 등 다수의 불안 요인이 상존
 - 정부는 선복 확보, 물류비 지원 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기업들 다수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하고, 기업과 협력하여 제품 생산 관련 공급처 분석, 수급 다각화, 동향 관련 모니터링 강화 등의 방식으로 중장기적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야 함



GVC 소식통 ① : 라-우 사태 및 중국 봉쇄조치 관련 기업 지원 문의처 안내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분야	지원기관	지원내용	비고
①수출통제	전략물자관리원(www.kosti.or.kr) 러시아데스크 · 제도문의 : 02-6000-6498 / 6499 · 품목분석 : 02-6000-6496 / 6497	對러 수출통제 상세 내용 및 對러 통제품목 사양 정보 등 안내	
②금융제재	금융감독원(www.fcsc.kr) ·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02-3145-1332→6번	현지 주재원 및 유학생 등의 대러 금융제재로 인한 금융애로 접수·해소 지원	
	한국산업은행 · 영업점 또는 상담센터(02-787-5611)	긴급 금융지원 상담 및 금융지원프로그램 안내 ※ 신용보증기금(053-430-4345)	· 특별운영자금 : 0.2 조원 · 중소기업 지원자금 : 0.6 조원
	수출입은행 · 영업점 등(02-6252-3416)		· 0.5 조원 규모 지원
	기업은행 · 영업점 등(02-729-7494)		· 0.7 조원 규모 지원
③무역투자	KOTRA(www.kotra.or.kr) · 무역투자24 전담창구: 1600-7119(2 → 4)	“무역투자24” 온·오프 전담창구 운영 진출기업 동향 점검, 비상연락망 가동	
	무역협회(www.kita.net) · 긴급애로대책반: 02-1566-5114	수출입기업 대상 긴급 애로접수 창구 운영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 02-399-7204/7034/6951 · 1588-3884	무역보험 지원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신속 지급 등	
④공급망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 1670-7072	소부장 수급애로·간접피해 등 기업 애로 접수 및 대응 지원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 044-203-3861~2	국내외 공급망 관련 정보 제공	산업부 무역협회·코트라 등 협업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 02-6000-5754	수출입물류 애로 접수 및 대응지원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물류 지원 (KOTRA 유망기업팀 2-3460-7428)	산업부·해수부·중기부 무협·물류협·해협·HMM 등
⑤물류	KOTRA(www.kotra.or.kr) · 유망기업팀: 02-3460-7445/7426/7428	긴급물류 지원 사업 타 지역 긴급 운송 또는 대체 바이어 찾는 과정 중 현지 임시 보관 및 내륙운송 서비스 지원	KOTRA 물류네트워크를 통한 현지 창고보관 및 입출고, 포장, 통관, 반품, 내륙운송 서비스 지원
⑥법률자문	KOTRA(www.kotra.or.kr) · 해외진출상담센터 : 1600-7119(연결번호2-4)	비즈니스 애로 러시아 변호사 지문 상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비즈니스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 대상	러시아 변호사의 수출제재 상세내용, 러시아 기업 조회, 계약서 검토 등 지원
⑦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전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 1811-3655	· 러-우 수출입비중 30%이상 · 러-우 진출·수출입기업 등과 거래 비중이 30%이상	·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 10억원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중국 공급망 관련

구분	담당 기관	연락처
국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 1670-7072 (대표전화)
	KOTRA 유망기업팀 ‘물류 현안 지원’	☎ 02-3460-7445/7430/7426
중국 현지	주중한국대사관(상무관) 및 총영사관(상무관)	☎ (+86)10-8531-0849 (대사관 상무관실)
	KOTRA 중국내 무역관(베이징 등 20곳)	☎ (+86)10-6410-6162 (중국본부, 대표전화)
	한국무역협회 중국내 지부(베이징·상하이·청두)	☎ (+86)10-6505-2671~3 (베이징지부)
	중중한국상회 및 지역한국인(상)회	☎ (+86)10-8453-9756~8 (중중한국상회)

※ 실물경제 공급망 관련 산업부-재외공관(상무관)-KOTRA(무역관)-무역협회-한국상회 등이 유기적 협업 시스템 운영 중



GVC 소식통 ② :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 중국지역 긴급 화물 보관 및 내륙운송 지원 특별사업 (KOTRA)

- (지원대상) 중국 내 물류 이동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참가비) 국고, 기업분담금 매칭 펀드로 100만원~1,000만원 지원
 - 국고지원 비중 : 중소기업(70%), 중견기업(50%), VAT포함
- (모집기간) 2022. 4. 1(금) ~ 예산소진 시까지
- (사업 참가절차) ①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사업신청 > 사업명 : '물류' 검색 > 해당사업 클릭 → ② 지원가능 여부 검토(해외무역관) → ③ 참가업체 선정(본사) → ④ 선정통보 및 참가비 납부 → ⑤ 무역관과 협약서 체결 → ⑥ 사업지원개시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45, 7430, 7426

● 유럽·러시아向 수출기업 해상+철도 복합운송 지원사업 (한국무역협회·LX판토스)

- (사업개요)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전용 선박 마련 → ① **운임 할인(10~15%)**, ② **선박 지원(항차별 30TEU 확정 지원)**, ③ **실시간 가격 조회 및 이력관리 제공**
- (지원대상) 국내 수출기업(실화주) *포워더사는 신청불가

기존대비 변경사항

- ▶ 도착지 확대: 유럽 전역 및 러시아
- ▶ 모집방식 변경: 상시모집

〈항차 정보〉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소요일	컨테이너	최종도착지	소요일
TCR	인천/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30일	40피트 (*20피트 불가)	유럽 전역	+2~3일
TSR	부산	폴란드 말라세비치	45일	20피트		
		러시아 모스크바	40일	40피트	모스크바 인근 지역	

- (상세내용) [유럽向 수출기업 해상+철도 복합운송 지원사업 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ITA.net > 무역지원 서비스 > 무역지원 사업일정'을 통해 신청
- (문의처) 지원사업 관련 : 한국무역협회 「화물예약데스크」 ☎ 02-6000-7617/5935 / logistics01@kita.or.kr

● 로스앤젤레스·방콕 수출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한국무역협회·밸류링크유)

- (지원대상) 국내 수출기업(실화주) *포워더사는 신청불가

〈항차 정보〉

도착지	출항지	출항일	신청마감일	선적 물량
Los Angeles, CA	부산	6월 14일(화)	6월 7일(화)	3FEU
Bangkok	인천	5월 18일(수)	5월 11일(수)	5FEU

- (상세내용) [물류 스타트업 "밸류링크유" 공동 수출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안내\(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ITA.net > 무역지원 서비스 > 무역지원 사업일정'을 통해 신청
-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화물예약데스크」 ☎ 02-6000-5754 / hjo117@kita.net



GVC 소식통 ③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글로벌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 개최 및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방문 (22.4.29)

※ 지난 4.29(금)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의 제로코로나 봉쇄조치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관련한 **공급망 현안**을 점검하고, **민·관 공급망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함. 아울러, 공급망 이슈 상시·전문 분석기관인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함

●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 개최

- 중국 상하이 지역 봉쇄는 3.28일부터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중점 산업·기업의 조업 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지 방역·물류 상황 등 감안 시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평가
 - 현재 중국 상하이로부터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국내 완성차 공장에서도 가동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하이 인근 장쑤성에는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우리 기업의 생산기지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공급망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함. 특히, 중국의 노동절 연휴(4.30~5.4) 이후 코로나 확산 및 봉쇄조치 확대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24)도 두 달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원자재 공급 불안 및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세계 3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흑토 지역에서 봄철 파종이 원활하지 않아, 금년 가을 수확량 감소 등 농산물 가격 인상(애그플레이션, agflation)도 우려되고 있으며,
 -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산 팜유 수출 금지를 발표(4.28 시행)하는 등 식량안보 차원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 참석자들은 지난 2월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가 출범하여 공급망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기업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등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는 것**을 평가함
 - 제조업 외에도 식량 등 연관 분야 공급망까지 확장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해 줄 것을 제안했으며, 기존 업종별 협단체 외에도 종합상사 및 민간기업의 역량들도 결집하여 대체공급선 확보, 해외 자원개발 등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
- 여 본부장은 “**효과적인 공급망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 현장에 기반한 민·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가 기업·협회·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공급망 관련 정보 및 대응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함
 - 아울러, “산업부는 양자·다자간 통상협력 채널을 통해 **핵심 광물·자원 보유국들과 공급망 연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향후 추진될 IPEF/FTA 등 **경제협력·통상 협상도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함

< 4.29일 현장 사진 >



< 참석자 >

- 산업부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김완기 통상정책국장, 고상미 통상정책총괄과장, 이상은 실물경제 긴급지원반 과장(분석센터 종합전략실장 겸임)
- 분석센터 : 조상현 센터장, 이상은 종합전략실장, 장상식 산업분석실장, 이금하 글로벌모니터링실장
- 민간 : 자동차협회 김주홍 상무, 전지협회 강석기 실장, 농촌경제연구원 김종진 연구위원, LX인터내셔널 백풍열 상무, 전략물자관리원 채수홍 센터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원호 박사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개요 및 방문

- (개요)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국내 최초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 (‘22.2.9 출범)

- 공급망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이상징후 신속 전파 및 대응조치 제언 등 국가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 지원
- ‘분석센터’는 ①종합전략실, ②산업분석실, ③공급망 모니터링실 등 3개 실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KOTRA 등 기관의 전문인력에 더하여, 업종별 협·단체 등 유관기관의 파견 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

< 여한구 본부장(가운데)과 분석센터 임원 사진 >



< 사진 설명 >

- 사진 왼쪽부터 ①이상은 종합전략실장(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인사이트’ 편집장), ②이금하 글로벌 모니터링실장(KOTRA 소속), ③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④조상현 ‘분석센터’장, ⑤장상식 산업분석실장(한국무역협회 소속)

< 4.29일 여한구 본부장 발언 >

- “우리 기업들도 현재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제공하는 물류·금융·법률·정보 등 각종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 “분석센터와 협력기관들도 우리기업들을 위한 창의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해 줄 것”을 요청

- (민·관 협력) 약 30개의 기관(협회, 유관기관, 연구소 등)과 **현장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22.3.21 확대 개편)

	개편 전(12)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6)
무역 통상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3)
에너지	
연구 기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



	개편 후(29)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동조합, 한국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16)
무역 통상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수입협회 (4)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3)
연구 기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활용 방법 (종합 문의 : gvc_research@kita.or.kr)

- (구독 문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대외발간물) 3.3(목)부터 **매주 1회(목요일) 발간** 중

- 산업통상자원부(정책·정보·간행물), 한국무역협회(분석센터), 코트라(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매주 15만개 이상의 기업 등에 메일·SNS 형태로 배포 중이며, 별도 개별 구독(수신) 신청이 2천 건 이상에 달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음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품목 문의) 공급망 분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문의 및 제언 → 중요성·파급력 등 검토하여 분석대상 선정
- (필자 참여) 본인의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필자로 참여 가능 (단순 정보제공 형태로 참여도 가능)

작성 종합전략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더 찾아보기 : 초인플레이션이 부른 로마제국 몰락의 교훈 (주간조선 홍익희)

※ 워렌 버핏의 평생 동업자이자 버크셔 해서웨이社 부회장인 찰리 멩거는 지난 2월, 로마제국을 멸망시킨 원인이 '초인플레이션'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강력히 경고함

● 초인플레이션 시대의 도래

- 美연준(FED)은 '07년 금융위기, '20년 코로나19發 경제위기를 **양적완화 조치**와 **제로 금리 정책**을 통해 눈 앞의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로 인한 통화량의 폭증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시대의 막이 열림**
- 미국의 '22.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대비 8.5% 상승하여 40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EU의 3월 CPI는 7.4% 상승하여 EU 역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움

● 로마제국의 몰락

시 기	사 건
BC 753 ~ 3세기	정복 전쟁을 통한 약탈 및 노예경제 발생, 일부 거래경제 발생 → 빈번한 전쟁과 전염병 창궐 → 자영 농민의 수 감소 → 노예를 해방하고 토지를 빌려주어 수확 일부를 상납하게 하는 소작농제도 출현(자영 농민의 수 보충) → 노예경제 붕괴 → 경제 경직 및 군사력 약화
BC 211	경제 경직을 막고 활성화하기 위해 데나리온 은화 발행 (원로원 발행, 은 100%) ☞ 포도농장 일꾼의 일당이 데나리온 은화 1개 
BC 1세기	아우구스투스 황제, 카이사르가 잠깐 시행하다가 암살로 중단된 금화 발행 (국가 발행) ☞ 아우레우스 금화 1개 = 데나리온 은화 12개 
1세기	네로 황제, 로마 대화재 이후 로마 재건을 위한 비용을 위해 데나리온 은화에 최초로 구리를 섞음 ☞ 인플레이션의 시작
2세기	- 트라야누스 황제, 데나리온 은화의 은 함유량 15% 감소 및 구리 대체 - 아우렐리우스 황제, 데나리온 은화의 은 함유량 25% 감소 및 구리 대체 - 셉티미우스 황제, 데나리온 은화의 은 함유량 45% 감소 및 구리 대체
3세기	- 카라칼라 황제, 데나리온 은화의 은 함유량 50% 감소 및 구리 대체 - 세베루스 알렉산데르 황제, 데나리온 은화의 은 함유량 75% 감소 및 구리 대체 - 서기 244년, 데나리온 은화의 은 함유량 95% 감소 및 구리 대체 → 초인플레이션 발생 ☞ 서기 220년 밀 1부셀(약 27KG) = 200 데나리온 ☞ 서기 344년 밀 1부셀(약 27KG) = 200만 데나리온 (124년만에 1만배 상승)
3세기 말 ~ 5세기	현물로 세금과 급여를 대체 → 군사력 저하 → 식민지 반란(조세 거부) → 조세력 약화로 인해 중앙정부에서 지방 영주들로 권력 이동 → 용병(군인)의 자국민 약탈 및 반란 → 서로마 제국 멸망
15세기	동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로마제국 멸망

● 시사점

- 불량화폐의 대량 주조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화폐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실물 선호도를 높임으로써 **통화경제가 몰락**했고, 경제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결국 거대한 제국도 몰락해버림
- 로마 데나리온 은화는 그 가치가 95% 떨어지는 데 200년이 걸렸지만 달러는 50년 만에 그 가치가 98% 이상 하락함 (금 1온스당 가격 : '70년 35달러 → '21년 1800달러대)

※ (생각해보기) 최근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37%(2월말, 미 WP·ABC합동조사) 까지 하락했으며, 패권 경쟁국인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 조치도 예외를 많이 부여하고 있음**
☞ 최근 글로벌 **공급망 경색**에 따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현대판 로마제국인 미국에게 ① **중국과** ② **인플레이션** 중 어떤 적이 더 위협적인가?

글로벌 경제지표('22. 5. 4. 수)

[환율]

	'20.12.31	'21.12.31	'22.3.31	'22.4.28	'22.4.29	'22.5.2	전일비	'21년말비
₩/U\$	1,186.30	1,188.80	1,212.10	1,272.50	1,255.90	1,265.10	0.73	5.22
선물환(NDF, 1월물)	1,186.30	1,190.00	1,222.60	1,272.80	1,256.20	1,265.50	0.74	5.08
₩/CNY	166.04	186.51	192.57	192.62	192.06	191.49	△0.30	2.32
₩/Y100	1,051.19	1,032.48	995.48	977.79	964.30	970.91	0.69	△5.23
Y/U\$	103.34	115.14	121.76	130.14	130.24	130.30	0.05	11.02
U\$/EUR	1.2279	1.1318	1.1165	1.0510	1.0544	1.0519	△0.24	△5.34
CNY/U\$	6.5305	6.3681	6.3455	6.6002	6.5975	6.6080	0.16	2.78

* '21년 평균 환율: (₩/U\$) 1144.6원, (₩/¥100) 1041.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1년 최저(해당일)	'21.12.31	'22.5.2 (전일)	'22.5.3	전일(5.2比)	'21년최저比	'21년말비
원유(두바이)		50.05 (1.5일)	77.12	105.40	105.40	0.0	110.6	36.7
철광석		87.27 (11.18일)	120.75	142.40	142.40	0.0	63.2	17.9
비 철 금 속	구리	7,755.50 (2.2일)	9,692.00	9,820.50	9,511.00	△3.2	22.6	△1.9
	알루미늄	1,951.50 (1.19일)	2,806.00	3,039.00	2,911.50	△4.2	49.2	3.8
	니켈	15,907.00 (3.9일)	20,925.00	32,430.00	30,910.00	△4.7	94.3	47.7

[반도체]

	'20	'21	'22.1월	'22.2월	'22.3월	4.28	4.29	5.2	5월(~2)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07	3.42	3.73	3.88	3.75	3.51	3.47	3.47	3.47
(%, YoY)	△21.9	8.0	7.1	△0.6	△11.00	△24.6	△25.1	△25.1	△22.6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5.71	7.45	7.54	7.65	8.0	8.2	8.2	8.2	8.2
(%, YoY)	7.0	32.8	33.7	33.1	33.9	34.7	34.5	34.5	32.5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4.8	'22.4.15	'22.4.22	'22.4.29	전주(4.22比)	'21년말비
운임지수	5046.66	4263.66	4228.65	4195.98	4177.30	-0.4	-17.2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3.31	'22.4.26	'22.4.27	'22.4.28	'22.4.29	전일(4.28比)	'21년말비
BDI	2217	2358	2404	2425	2403	2404	0.0	8.4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협력기관

